

| 노동존중사회연구회 |

‘노동존중사회’ 논의를 위한 기초를 정리하다

다양한 의견 청취 통해 종합 검토

송해순 전문위원

향후 사회적 대화 재개 시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존중사회’와 관련하여 의제의 범위와 내용 등에 대한 예비 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017년 12월 1일 연구회를 구성·발족하여, 총 7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 받는 인간적 노동체제 구축해야

‘노동존중사회연구회’는 노동친화적 정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하고, ‘노동존중사회’의 개념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 논의가 부족한 바, ‘노동존중사회’에 대한 개념, 의제 등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구성·운영하였다.

2017년 12월 1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총 7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차별 개선, 사회적 시민권, 노동기본권, 노동참여 거버넌스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다.

1차 회의(2017.12.1.)에서는 연구회 발족 및 분야별 내용을 검토하였다. 총론 부분에서는

‘노동존중사회’의 필요성 등을 다루었다. 1987년 한국의 민주화는 ‘어떤 민주주의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못한 채 전개되었고,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 급급한 민주정부들도 노동문제를 민주주의와 관련시켜 다루지 못함에 따라 국민들의 삶은 민주적 변화와 무관하게 악화되었으며, 비정규직의 증가와 근로빈곤층의 확대는 민주화 시대가 낳은 역설이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일상적인 행복을 증진시키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고용안정 부분에서는 실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 해소 등을, 차별 해소 부분에서는 저임금 및 소득불평등 해소·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동의 개선 등을, 사회적 시민권 부분에서는 사회보험제도의 대상 포괄성 확대와 보장성 강화와 일 생활 균형을 위한 모·부성휴가 및 돌봄서비스 강화 등을, 노동권 부분에서는 헌법과 노동권·노동의 재인격화·인간다운 생활권의 중심성·노동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본적 자유와 권리 등을, 노동참여와 혁신 부분에서는 노동참여적 노사관계 거버넌스 확립·노동정책에의 참여수준 제고·노조의 사회적 역할 및 위상 확대(USR) 등을 검토하였다.

2차 회의(2017.12.15.)에서는 노동존중 개념을 검토하기 위해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으로부터 ‘필라델피아 선언’과 관련한 내용을 듣고 논의하였다. 박제성 연구위원은 필라델피아 선언이 과거 법치적 노동조직에서 수치적 노동조직으로 전환(목적과 수단의 전환)되는 과정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필라델피아 정신 회복(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체제를 만드는 것)을 위해서는 사용자 책임과 노동자 연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3차 회의(2018.12.29.)에서는 5대 분야별로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하였다.

미조작·취약계층, 당사자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4차 회의(2018.1.12.)에서는 미조작·취약계층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는 ‘비정규직 문제 해법과 우선 개선 과제’에서 비정규직 고용형태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이해집단이 복잡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노사관계만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추상이 아닌 실질적 사회적 대화로서의 합리적 공론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남신 상임활동가는 경제·사회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이해관계자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회적 대화 틀에 비정규직-청년-여성 등 당사자 참여가 보장되고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은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여성노동자의 당면 과제’에서 성별임금격차 해소, 최저임금 1만원과 (공공부문)정규직 대비 80% 임금 약속의 중요성 강조, 노동관련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과소대표 또는 대표 없음 문제 해결, 특수고용 여성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방안, 시간제 일자리를 재고하고 시간제 노동자 차별 철폐, 여성의 노조조직을 더 어렵게 하는 강제적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중지 등을 제안하였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친화적 고용노동정책 제언’을 통해 노동존중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론장의 자원 재분배가 선행되어야만 제도·사업에 있어서도 재분배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특히, 신생조직의 경우 의제 확장을 위해서는 사회적 거래 비용이 필요하나 현실적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적 거래를 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며, 미조직 간 공동의 정책 의제 형성도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제5차 회의(2018.1.26.)에서는 오정택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연구원이 ‘독일의 미래 전략과 노동 4.0 정책’에 대해 발제하였다. 오정택 연구원은 발제문을 통해, 독일의 노동 4.0의 좋은 일자리(Gute Arbeit)는 소득과 사회안전망(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강화, 직업 교육 및 상담 시스템 강화), 좋은 노동으로의 통합(직업 능력 향상을 통한 좋은 노동의 기회 균형 부여), 새로운 정상으로서 다양성(경직된 노동모델 대신 생애주기에 맞춘 노동모델 준비), 노동의 질 습득(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생산 프로세스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장려), 공동결정 참여·기업문화 함께 고려하기(혁신적이고 민주적인 기업조직 형성을 위한 노동자 참여 강화) 등으로 정의된다고 하였다. 또한 독일 노동 4.0의 주요 과제로 노동 역량(실업보험에서 노동보험으로), 노동 시간(유연하지만 자기결정권 보장), 서비스직(좋은 노동조건 강화), 건강한 노동(신체적·정신적 건강 향상), 근로자 정보보호(근로자 정보보호 지표 개발로 질적 평가 기준 마련), 공동결정 및 참여(기업-노사 간 협의 프로세스 강화), 자립(자영업자와 스타트업을 위한 지원 및 안전 체



계 마련), 사회국가(디지털 전환을 유럽 및 사회국가 틀에서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 등을 지적하였다.

노·사, 노동존중사회 위한 정책대안 제시

제6차 회의(2018.2.9.)에서는 ‘노동존중사회’와 관련한 노동계 의견을 청취하였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노동가치 구현을 위해서는 평등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노동중심 임금·소득주도 성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주요 정책 사항으로 노동기본권의 온전한 보장·노동자 보호제 도입·산별교섭체계 확립 등 사회연대적 노사관계 구축, 좋은 일자리 360만개·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철폐·고용안정·최저임금 1만원 실현 등 좋은 일자리와 차별 없는 노동시장, 노동자 경영참가법·정의로운 조세 전환·노동친화적 선거제도 개혁 등 경제민주화와 정치개혁, 든든한 노후·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개선·돈 걱정 없는 공공교육 등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박용석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노동존중사회의 주요 가치는 ‘노조 할 권리’와 노동개헌이라고 하였다. 다양한 정책의제의 수평적 열거보다, 실제 노동존중의 사회 실현의 핵심 지표로서 노조 조직률 제고 및 헌법 제33조의 개헌이 최우선적 가치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제7차 회의(2018.3.9.)에서는 ‘노동존중사회’와 관련한 경영계 의견을 청취하고 연구회를 최

중 정리하였다. 김영완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경영계도 공감하나, 노동시장에서도 수요와 공급법칙은 유효하고, 시장 활력을 갖고 성장하기 위한 정책도 같이 추진해야 하므로,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정책추진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시급한 문제이므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사회적 대화를 진행해야 하며, 당장 정부 주도로 신산업을 개척하거나 신규 일자리를 만들기 어려우므로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자율적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노동존중사회’와 함께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인력활용의 유연성 확보(기간제, 파견 규제 완화), 해고 시 사용자의 금전보상신청제도 인정,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및 산정근거 명확화, 일하는 방식 변화에 따른 재량근로제 개선, 단체협약 유효기간 개선, 생산시설 및 직장점거 금지, 기업 생산활동 유지를 위한 대체근로 허용 등을 제시하였다.

‘노동존중사회연구회’는 ‘노동존중사회’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구성·운영되어 시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그 과정에서 노·사, 미조직·취약계층,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제7차 회의를 끝으로 회의체는 종결되었으며, 경제사회주체 및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동존중사회: 21세기 한국의 노동과 사회발전’ 공개 토론회(18.3.20.)를 개최하였다.

〈붙임1〉 위원명단

| 구분 | 위원명단 |
|-----|--|
| 위원장 |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 전문가 | 강성태(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이병훈(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

〈붙임2〉 운영현황

| 일시 | 안 건 | 발 제 자 |
|---------------------|--------------------------------|--|
| 제1차 회의 ('17.12.1.) | 연구회 발족 및 분야별 내용 검토 1 | |
| 제2차 회의 ('17.12.15.) | '필라델피아 정신' 논의 | -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 제3차 회의 ('17.12.29.) | 분야별 내용 검토 2 | |
| 제4차 회의 ('18.1.12.) | 미조직·취약계층 근로자 의견청취 | -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 -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
| 제5차 회의 ('18.1.26.) | 독일의 미래 전략과 노동 4.0 정책 | - 오정택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연구원 |
| 제6차 회의 ('18.2.9.) | '노동존중사회' 관련 노동계 의견 청취 | -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박용석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
| 제7차 회의 ('18.3.9.) | '노동존중사회' 관련 경영계 의견 청취 최종 정리 | - 김영완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 |